

손과 발 묶고 있는

“개인택시 부제 폐지” 하자!!!

정부가 4차산업 혁명과 공유경제라는 미명 아래 추진된 카풀과 타다가 택시 산업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시대로 인하여 그동안 택시업계의 기열산 투쟁과 열사들의 악행으로 카풀은 법제화되어 해결 되었지만 렌트카인 타다는 일명 타다 금지법이 국외에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는 가운데 길거리에는 타다 영업으로 인한 택시업계의 손실과 생존권의 우려 속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는 미원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 ▶ 또한 우리 택시 업계가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택시로 선택받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적으로 카풀과 타다를 금지하도록 하는 투쟁과 병행하여 카풀과 타다가 왜 생겨나게 됐는지 많은 자성과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 ▶ 특히 일정 시간때의 일시적 공급부족이나 일부 택시 종사자들의 승차거부, 부당요금, 불친절 등은 택시업계가 반드시 해결해야할 병폐인 것이며 이제는 더 나아가 국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택시업계가 살아 남을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부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 ▶ 자본주의 민주국가에서 사업자에게 한달에 20일만 영업하라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규제이며 일반 사업자들과도 형평성이 없는 것으로 반드시 개인택시 부제는 폐지 되어야 합니다.

개인택시 부제가 폐지되면!!!

- ◆ 택시사업의 경쟁력이 확보되어 제2의 카풀과 타다를 막을 수 있습니다.
- ◆ 개인택시 사업자로서 근무시간을 스스로 조정하여 여객이 많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운행할 수 있습니다.
- ◆ 근무환경 개선으로 운송수익금이 증대 됩니다.
- ◆ 개인택시 사업자의 가치가 크게 상승합니다.
- ◆ 어느 때는 쉬고 어느 때는 일하라고 하는 노비근성을 탈피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부제가 폐지되면 각종 플랫폼 사업에 경쟁력이 생겨 우리 업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력이 있어야 합니다!

365일 24시간 움직일 수 있는 자가용(카풀), 렌트카(타다)가 택시영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면허를 받고 사업을 하는 개인택시는 2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어야 한다는 것은 경쟁력에서 뒤떨어지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전문사업자가 일반 자가용 보다 렌트카 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택시업계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재 스마트 시대에 우리가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뀌지 않으면 제2의 카풀과 타다 사태로 언제든지 재발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택시 부제 폐지에 전 조합원이 적극 동참합시다!

인천시에 부제 폐지를 적극 건의해야 합니다. 전체 조합원님 모두가 100%가 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적극 참여하여 **개인택시 업권과 노후의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조합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꼭! 필요합니다!!!**

개인택시 종 단결로 택시부제 폐지하자!!!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